

지역 특산품 품질 개량 '사활' 건 지자체들

담양 딸기, 강진 미니 밤 호박 등 고당도·신품종 개발로 판로 개척

담양군과 강진군 등 지자체들이 지역 특산품의 질 향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술 및 기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지역에 상관없이 각종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어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고당도 등 특장점을 부각시켜 특산물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담양군은 지난 23일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재배기술 세미나를 갖고 신품종 재배 농가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산 딸기의 조기 정착과 명품화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품종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재배기술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이철규 연구사의 '담양과 죽향의 품종 특성과 재배방법'에 대한 강의와 출하와 함께 성공적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죽향'의 유통사례와 판매 전략에 대한 서울청과 강석근 상무이사의 사례를 통한 발표가 이어졌다.

'죽향'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가라시장 평균 판매가격이 특 2kg이 3만2000원으로, 레드필 품종에 비해 6000원 더 높게 유통되기도 했다.

농업기술센터 장광환 소장은 "담양과 죽향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공동집하, 소포장재 규격화, 수확 후 품질관리 등 농가들의 신제품 판매 전략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오는 2020년까지 300ha의 신 품종 명품화 재배단지를 확대 보급해 해외 수출과 해외의 수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이달 중순부터 당도가 15브릭스에 이르는 미니 밤 호박의 출하에 나섰다. 이는 수확을 능가하는 당도에 해당된다. 현재 지역 내 3.4ha의 면적에서 17곳의 농가가 재배 중인 미니 밤 호박의 경우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부 단호박보다 작지만 월동한 당도와 구수한 밤 맛이 특징인 미니 밤 호박의 상품성을 높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전략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강진군의 미니 밤 호박이 인기리에 출하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24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 분석실에서 미니 밤 호박의 당도를 측정하고 있다.

세운 것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준 연구사는 "시장성이 좋은 미니 밤 호박이 귀농인을 중심으로 재배희망이 있어 시작한 올해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다"며 "시장수요와 사업수요를 적절히 안배해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담양=정재근기자 jgg@

나주시, 박물관 해설 시민 도슨트 양성 교육

23일~10월 15일까지

시30분부터 2시간씩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된다.

나주시는 국립나주박물관 등에서 안내할 시민 도슨트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25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대회의실에서 23일 '나주시 박물관 도슨트 양성 교육' 개강식 행사를 교육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나주 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국립나주박물관(반남면 소재)과 나주박물관(반남면 소재)과 나주박물관(반남면 소재) 개관에 대비해서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을 전시해설사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23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매주 화요일 저녁 6

교육내용은 구석기부터 고대사회까지 영산강유역의 역사에 대해 전공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박중환 국립나주박물관개관준비팀장의 국립나주박물관 전시에 대한 강의와 투어도 포함돼 있다.

교육생들은 평가를 통해 박물관 도슨트로 선발되면 올해 11월 22일 개관 예정인 국립나주박물관과 2014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나주박물관(반남면 소재)에서 전시전문 해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된다.

도슨트(docent)는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춘 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을 말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g@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우봉마을 어르신들이 25일 오후 우봉리 들소리 타령을 부르고 있다. 우봉리 들소리는 모두 50대이지만 이날은 모를 심고 김매기를 할 때 부르는 더덜기 타령 등 40대당만 공연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화순서 풍년 기원 우봉들소리 공연

전남도무형문화재 예고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풍년맞이 우봉들소리 공연이 25일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우봉마을 들녘 논에서 펼쳐졌다.

우봉들소리는 지식강 유역의 넓은 평야를 끼고 있는 능주면이나 도곡면의 들소리와는 다르게 매우 서정적이며 정적인 것이 특징인 노동요다.

시대에 억압받는 여인들의 삶에 대한 한과 회한이 담긴 노랫말 등 개인적인 내용이 대부분인데 반해 우봉리 들소리는 당시 시대상을 거시적으로 풍자한 대목이 많아 작품

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우봉리 들소리는 다섯마당으로 펼쳐지는데 이번 공연은 네 마당만 공연됐다. 우봉들소리는 지난 2008년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남도문화제에 화순군 대표로 출연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작품성 뛰어난 민속놀이이다.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4호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한편 우봉마을은 해마다 정월대보름이면 마을 앞의 당산나무에 당산제를 지내는 등 공동체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마을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새 얼굴

"소통·화합 선진국형 담양만들것"

이 기 환 담양부군수



"생태도시 담양에서 함께 일하게 돼 영광이며 선진국형 담양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이기환 담양부군수(55)가 취임식을 갖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순천 출신인 이 부군수는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대숲마을 생태도시 담양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국형 담양만들기를 위해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민선 5기 군정혁신전략인 '담양플랫폼 성공

의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광문화국 관광정책과장을 역임한 이 부군수는 목포대 지체학과 박사 및 전남대 행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부인 박순옥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로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전북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열기 후끈

부안, 해양수산업 출장 교육에 80여명 몰려

무더위 속에 부안지역 어업인들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이 뜨거워 열기 속에서 진행 중이다.

부안군은 25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출장교육을 요청, 지난 24일부터 부안수협에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 참여자는 80여명으로 부안지역 어업인 뿐 아니라 신안과 충남 서산 등 타지역 어업인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처럼 교육 참여자들이 몰려들면서 점심시간 때에는 인근 식당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은 3일간 진행되며 수료 후에는 면접시험을 통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면접시험은 다음달 8일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을 수료한 어업인 중 면접시험 불합격자나 미응시자의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히 부안에서의 출장교육을 통한 면허 취득은 현장수행능력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종전과 같이 부안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경우 1인당 소요될 30만여원 등 2700만원의 경비를 절감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무더위 속에서도 검푸른 바다와 싸우던 어업인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면허취득 교육을 받느라 무더위와 전쟁 중"이라며 "정기적으로 매년 1만 이상의 교육을 유치해 지역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남원역에 농특산물 전시장 남원시는 25일 남원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9일부터 코레일 남원역 로비에 지역 농특산물 전시장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시장에는 남원에서 생산된 쌀, 과일, 전통민속주, 목기, 한지, 허브제품 등 남원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 전시된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kwangju.co.kr



어린이들에게 전통 줄타기를 가르치고 있는 김대군씨.

"아슬아슬 스릴 넘치는 줄타기 배우세요"

예능보유자 김대군씨

고향 정읍서 여름캠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중 요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예능보유자인 김대군씨가 고향 정읍에서 '전통 줄타기 여름캠프'를 연다.

경기도 과천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보존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 10박11일간 정읍시 이평면 송참봉조선통문에서 보존회 소속 줄타기 전수생 및 교육생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7일에는 오후 7시 이평초등학교에서 재능문화기부 공연 일환으로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줄타

기 '관공' 공연도 가질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대군 씨는 정읍 운동면 비봉리 출신으로 2012년 정읍예술제 초청공연을 계기로 지난해 8월에 도 여름캠프를 정읍에서 실시한 바 있다.

줄타기는 줄과 대와 어릿광대가 함께 삼현육각(악사)의 연주에 맞추어 줄 소리, 춤, 재담을 섞어가며 공중에서 잔노릇(기예)을 펼쳐가며 관객과 대화하며 함께 판을 만들어가는 전통 연희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유해야생동물 퇴치 적극 나서

포획 보상금제 운영

순창군이 유해야생동물 서식밀도의 급격한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자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적극 나섰다.

군은 25일 "모범수렵인 21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대안으로 포획 보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렵허가(피해방지단, 자력 및 대리포획)를 받은 자에 한하며, 포

획 후 읍면사무소에 신고접수를 하면 한 마리당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 5만원, 멧비둘기와 꿩은 5000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군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농작물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으로 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 이 같은 포획보상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전주시, 저소득 임대주택 무이자 2천만원 지원

전주시는 25일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 희망자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만 자신이 부담하면 된다. 대상은 장기임대주택이나 원룸 등이다.

무이자 지원기간은 2년이지만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전북개발공사의 예비 입주자 모집에 신청, 입주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지 동사무소나 시청 주택행정팀에 신청하면 된다.

/전주=박승기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전통시장상인회, 시장 활성화 난타공연

고창전통시장은 지난 23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고객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문화행사 난타공연을 마련했다.

고창군이 후원하고 고창전통시장상인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난타공연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고창 5일 시장을 찾은 관광객, 지역주민,

시장상인 등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매일 주기적으로 풍물, 난타, 농악공연, 다문화 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창=음향기자 cy0370@

부안 봉래곡서 옛 풍류문화 재현행사

오는 28일 내빈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부안 실상사가 주최하고 전라우수영들소리보존회가 주관하는 옛 풍류문화 재현행사를 봉래곡 너럭바위에서 실시한다.

'전라우수영 풍류곡, 봉래곡에서 매창을 품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재현행사에는 들소리보존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들소리보존회는 이번 재현을 통해 내빈산 봉래곡이 유희경과 허균, 매창, 김석근 등이 즐겼던 풍류문화의 명소임을 알릴 계획이다. 재현행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매창공원에서 열리며 오후2시부터 4시까지 봉래곡에서 펼쳐진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순창, 풍경 10곳·특산물 10선 선정 관광객 유치

순창군이 3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순창의 풍경 10곳과 농특산물, 가공식품 10선을 선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기로 했다.

군은 이와 관련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순창풍경과 농특산물이 실린 50여쪽짜리 '순창구경(+1)' 책자를

펴냈다.

이 책자는 코레일과 함께 하는 농촌체험열차 '데일리'와 버스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관광객 증대를 위해 순창을 1권의 책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제작 발간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